

홀로그램 원천기술 보유 미래기술연구소, 익산에 등지

올해 19개기업 투자협약 체결, 이중 12개 기업 이주해 50여개 일자리 창출 소재, 부품, 완제품, 콘텐츠 분야 지원해 홀로그램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익산=고운영 기자

익산지역에 홀로그램 기업이 잇따라 등지를 틈타서 홀로그램 산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27일 홀로그램 원천기술보유 기업인 ㈜미래기술연구소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기술연구소는 익산지역에 연구소와 사무실 등을 신설하고 홀로그램 필름, 광기록 장치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기술연구소는 홀로그램 관련 원천기술 보유로 홀로그래픽 광기록 시스템 개발, HOE(홀로그램 광학소자) 기술 개발 등에 주력하는 홀로그램 대표 벤처기업으로 경기도 수출프론티어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의 기술매칭 지원을 통해 신신화학공업과 협력해 홀로그램 라벨 분야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익산시 홀로그램 콘텐츠서비스센터,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 센터 지원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R&D 개발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국가공모과제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어 익산시에 연구소 설립으로 익산시 홀로그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투자협약과 지난달 투자협약을 체결한 ㈜아테크넷을 포함해 총 19개 홀로그램 기업 중 이미 12개 기업이 이전을 완료해 우리나라 홀로그램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등 다양한 산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감콘텐츠 신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홀로그램 산업 지원 기관인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는 홀로그램 관련 기술 및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홀로그램 분야 사업영역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지난 4월 공모에 선정돼 구축 중인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는 홀로그램,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을 포괄

하는 기술분야 전반에 대해 XR 소재, 부품, 장비의 수요·공급 기업간의 비즈니스 매칭과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유수한 실감 콘텐츠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소재, 부품, 완제품, 콘텐츠로 이어지는 홀로그램 산업생태계 전 분야 지원을 통해 익산을 홀로그램 산업의 선도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민관포럼 개최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선 지역공동체의 연대성 회복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완주군은 27일 오후 완주군가족문화교육원 2층에서 박성일 완주군수와 서남용 군의회 의원, 이종하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장 등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민·관포럼'을 개최하고 거버넌스를 통한 완주군의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최낙관 예원예술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독일 사례로 보는 '로컬 거버넌스와 커뮤니티 케어' 주제발표에서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에서 의료와 돌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욱 크고 다양하게 표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주민이 원하는 것은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인의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에서 답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일 군수는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늘어나면서 전달체계 강화와 효율성 극대화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염재복 기자

김제시, 고용시장 활성화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김제시는 오는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 업체들의 구직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취업 알선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진행한다.

이는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통해 고용시장 안정도모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채용을 원하는 관내 기업들의 참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김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기업체와 구직자는 사전 신청을 해야한다.

참가 신청은 김제고용안정일자리센터 홈페이지 <https://gimjegoyong.modoo.at>나 전화 063-542-5900로도 가능하다. /백용규 기자



박준배 시장은 "취업박람회를 통해 지역의 많은 구직자들이 김제지역에 정착하여 지역발전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백용규 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익산시의회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의원들이 각 상임위 소속별로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진규 보건복지위원회장은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사업 추진에 있어 물리치료사의 이직이 잦아 어려움을 있다고 판단된다며 처우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윤영숙 산업건설위원회는 마을전자상거래가 2020년 대비 2021년 추진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내년에는 판매실적 위주보다는 예산절감과 중·소농 지원확대를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지원받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종대 기획행정위원회는 합의제 감사위원회 운영시 서면보다는 회의진행을 통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자체 종합 감사 시 재정상 조치가 해마다 반복된다며 반복 지적사항에 감소되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동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자활사업 추진에 따른 탈수급율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지역자활센터 등과 협의해 자활근로를 직업장출모델로 추

진해 탈수급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장경호 산업건설위원회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공간 협소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반려동물 놀이터가 방문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수익창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철원 기획행정위원회는 시민들이 분청을 방문해서 부서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부서별 유도선에 대해 건의하고, 민원편의를 위해 복합적인 민원업무에 대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재동 보건복지위원회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과정에 발달장애인 가족·단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사업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대 산업건설위원회는 황등육교는 인근에 다수의 마을이 있고 학교가 많아 노약자, 어린이들의 이용빈도가 높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엘리베이터 설치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고운영 기자

지역 포커스

정읍 유아숲체험원, 휴식·힐링 공간으로 인기

'숲에서 놀자' 등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기

정읍시가 아이들의 정서적 교육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정읍사공원 일원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유아 숲 체험원은 아이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친환경 놀이공간이자 교육 시설이다.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내 유아들의 인성과 창의성, 면역력 향상을 위해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유아숲체험원에는 숲속 단풍나무와 소나무 등을 활용한 체험 공간과 통나무다리 건너기, 계류시설, 트리하우스, 출렁다리 등이 설치돼 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들이 숲을 통해 마음껏 뛰어놀며 만지고 보고 느끼는 등 오감을 통해 유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아 준다.

숲 재료를 이용한 만들기 체험 등 자연과 교감하는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읍시민은 물론 타지역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지난 2-3분기 프로그램에 2,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시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의 지도하에 계절과 식생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 레포츠 수요 증가에 맞춰 트리클라이밍 체험 장을 추가 조성·운영하고 주변 환경정비와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박기수 기자

부안군,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부안군은 가을철 집중 발생하는 쯤쯤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쯤쯤가무시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3주(잠복기) 이내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피(검은 딱지) 형성이 특징적이다. /고병하 기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진드기에 물린 후 4-15일(잠복기)이 지나 고열,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고 다른 감염병에 비해 치명률이 약 20%로 높은 편이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며 야외활동 2-3주 이내 발열, 두통,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필요 시 적시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고병하 기자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정기회의 개최

철도중심의 전북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 제안 논의가 익산시에서 이뤄졌다.

익산시는 27일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2021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익산국제철도역 완성을 위한 Hub & Spoke망 구축전략(철도계획 분야)', '익산시 철도 유휴부지 활용에 따른 환경 오염성 상관관계 연구(철도 건설및공과 분야)', '익산역의 편의성과 발전 방향(복합환승 분야)',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에 따른 철도 연계 물류활성화 전략 수립(물류및유라시아 분야)' 등 연구과제 추진사항이 분과별로 발표됐다.

KTX익산역을 전북거점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중교통과의 편리한 연계환승 체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설계수요에 대비해 이용수요가 100%를 초과해 증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은 2019년 구성돼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연구과제 추진상황 발표와 더불어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들을 재구성에 따른 위촉장 수여가 이뤄졌다.

철도정책포럼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임기만료에 따라 5명이 해촉됐으며 20명이 선임됐다.

정현을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제언을 받아들여 시가 선도적인 철도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규창 기자

